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로마서 3:21-3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23-24)

바울은 다시금 1:16-17의 적극적 명제를 이어받는다. 바울이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는 의’라고 번역했음)가 복음 선포에서 현재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사건에서 단번에 근본적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며 그런데 그것도 율법수의 협력 작용 없이 또 율법의 정죄적 힘을 해제하고서 그렇게 되었다고 바울은 강조한다.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은 하나님의 다가올 구원행위를 명백하게 지시한다.

바울은 그의 칭의론을 전개한다. “하나님 의의” (즉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묵)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내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타당하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죄인으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23 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은 타락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묵을 차지했다는 유대인의 사상을 논제의 실마리로 삼는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24 절)는 것은 죄책에서 면제된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안으로 영접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공적 없이) 선물을 받는 식으로 일어난다. 즉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25-26 절은 이 행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한다.

아마도 바울은 25 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한 하나의 유대그리스도교적 신앙고백문에서 뽑아낸 공식 문구들을 이용한다. 이것으로 25 하반절과 26 상반절에 발언(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이 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이중으로 결합된 연유를 잘 알 수 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를 위한 속죄치 (개역한글판에는 “화목제물”로 번역됨)의 수단이다 (‘속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낱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의 속죄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출 16:14-16 참조. 루터는 개역성경의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인간의 죄과를 속하심으로써, 즉 예수의 목숨의 제물을 통하여 인간의 상실당한 삶을 속량하심으로써 (막 8 : 37 참조), 자기의 의(의로우심)를 실증하셨다. 이 의는 징벌을 수행하심으로써 “입증해야” 하는 처벌하는 의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의이다. 이 의는 그의 신실성의 발로이다. 이 의는 인간의 허물을 속하여 폐기함으로써 인간을 그 죽음의 감옥살이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현실 안으로 이끌어 간다. 바울은 이것을 26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자기에게(하나님께) 내맡기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자기와의 교제 안으로 영접하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가 참되시며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하신다.

간결한 문장으로 바울은 결론을 끌어낸다. 27 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실존을 말한다. 실존의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다. 28-29 절은 하나님의 행위가 미치는 작용 범위를 말한다. 하나님의 행위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꼭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31 절은 4 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선포는 율법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21 절 참조) 하나님의 뜻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효력이 발생하게 한다 (세우느니라).